



동동여행
떠나자~
튼튼유치원

2023.5.22.~2023.7.7.
몸튼튼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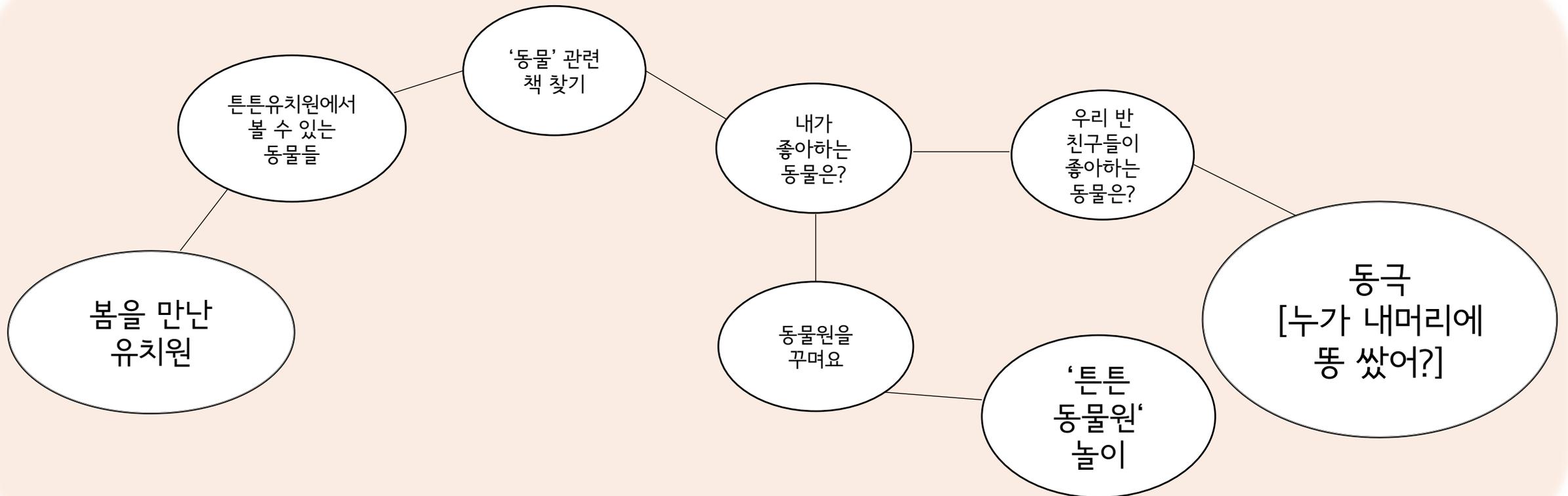
 튼 튼 유 치 원

'동물'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튼튼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느끼는 사계절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올라오고 꽃들이 피어나는 변화된 유치원의 자연을 탐색하던 친구들과 1층 복도 창문에서 보이는 탱자나무에 '멧 비둘기' 들이 나뭇가지를 물고 와 등지를 트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와! 새들이 날라와~' 호기심이 생긴 친구들과 도서관에 올라가 '동물' 관련 책을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며 [동물]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5.22.~ 7.7.)



튼튼유치원의 봄



꽃 향기
맡아보자!



나무 껍질이
벗겨졌어요!

난 개미가 하나도 안 무서워.

손에 올릴 수도 있어. 간질간질~

나무 위에 개미가 많아.

개미야 나뭇가지 위로 올라와~





다양한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며 봄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새들의 보금자리,
튼튼유치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지?



나무가 많은 튼튼유치원
아름드리나무는
바깥놀이를 하는
친구들의
그늘도 되어주지만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답니다.





안녕~
나는 멧비둘기야!
지금 알을
품고 있단다.



꼭신평신평하게
모래를 깔아주자.

1층 복도 창문에서 보이는 탕자나무에
멧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둥지와 새를 더 관찰하며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해
관심은 더욱 더 커져갔습니다.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도서관에서 '동물'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해보며 더불어 사는 동물의 소중함과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위해 환경을 보호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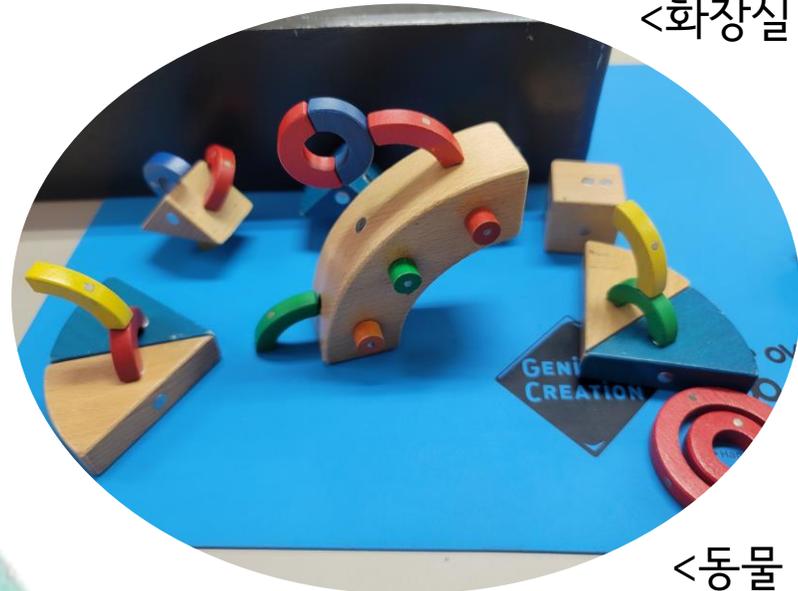
나만의 작은 동물원



<동물들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



<화장실 - 손 씻는 곳>



<동물 놀이터>

교실이 동물원으로 변했어요!

얼룩말 무늬
멋지지?



원숭이 꼬리는
길어요~~



교실 벽면을
다양한 기법으로
여러가지 동물로
꾸며보았습니다.



교실이 동물원으로 변했어요!

난 상어를
찾았어!

저기 귀여운
새우도 있네~





▲ 매표소

▼ 악어 기념품 가게



사자 음식점▶

동물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구성하고
직원과 손님의 역할에 맡아
경험을 살려 어울리는 대화를
주고 받으며
동물원 놀이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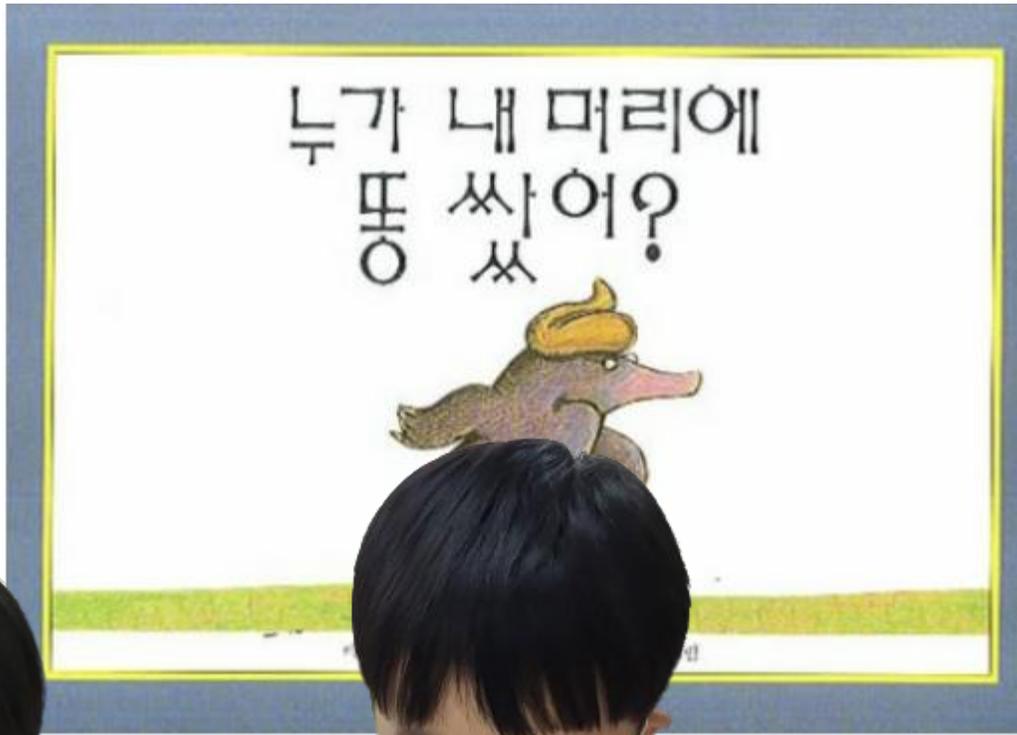


◀ 화장실



먹이주기 체험▶

동극 활동을
준비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 동극



“동물 주제를 마무리하며”

바깥놀이를 하며 발견한 봄의 변화와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소중함과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 놀이를 하며 동물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고 다양한 생각으로 표현해보며 나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교실을 동물원으로 꾸며 역할놀이를 하고 동물 관련 그림책을 읽고 동극으로 재구성해보며 친구와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기르고 협동하여 발표하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멋진 몸튼튼반이었습니다.

